

### 건강백서 ③

### 아들 부처님 ③

### 주부신행담



**십이지장**

십이지장은 위의 끝부분인 유문부(幽門部)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소장(小腸)의 시작부분이 되는 곳이며 그 길이가 지기 손가락 굵기의 12배쯤 된다고 해서 명명(命名)된 곳이다. 이곳은 창자의 처음 부분이며 간(肝)과 수담관(輸膽管)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胆汁)이 담낭(膽囊)을 거쳐 저장 되어 있다가 필요할때에 십이지장 안으로 배출되어 위에서 내려 보내진 음식물에 잘 섞이게 된다. 그러므로 백색(白

### 음식을 화학적 소화의 깊이 관여

色)의 음식을 먹을지라도 대변색이 황색으로 착색되게 된다. 이것은 지방질의 소화와 관여하며 비장(脾臟), 췌장(脾臟) 등에서 분비되는 각종 효소들과 더불어 음식물의 화학적 소화의 깊이 관여한다. 동시에 담즙은 섭취된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상당한 해독(解毒)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충(蛔蟲)은 주로 소장에서 살지만 때로는 이곳까지 상충하여 구역질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담관을 막아 황담(黃疸)에 이르게 하거나 소화불량 또는 격렬한 충성복통(慢性腹痛)을 일으키기도 하여 결석(結石)으로 일어나는 통증과 더불어 '가슴앓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공은 인본(人眞)을 비로로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졌지만

윤을상 (한의학 박사)

**“절에 가면 뭐하는데?”**

승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뭐하긴. 법회를 보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스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막상 물어가서 할한다는 이야기는 술술 나오지 않았다. 사실 학생법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필요가 없었던 나였기에 그렇게 더듬을 수 밖에 없었다. 순간 부끄러움의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거기 나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다들 좋아 보이더라. 그러니 너도 나가서 어울려 봐.”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군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 하고 절에서는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차이가 있었지만 말야.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있던 그 친구들도 함께 다녀려무나.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절에 가서 학생법회 담당하시는 스님의



그림 · 이준석

### 내 아들 포교하는 일에 가슴 벅찼다 훌륭한 엄마가 되고자 불서를 읽었다 그러다 법당에 도서관 설치를 발원...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 친구들과 사귀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일단 친구들의 얘기에서 승호는 마음을 굳히는 눈치였다. 녀석이 어느새 그렇게 눈치 빠르게 사는 법을 익히고 있었던가. 승호는 잘에 다니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뛰어 나왔다. 나는 잠시 흐뭇했다. 내가 나의 아들을 포교하는 일이지만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다. 포교를 했다는 보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들녀석이 비록 어린 걸을 가지 않도록 내가 보살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한 직후에 그 아들을 부처님게로 귀의 시킨 보람이었기에 가슴 가득 기쁨이 샘솟았던 것이리라.

그렇게해서 승호는 학생법회를 다니게 되었다. 함께 파주소에 잡혀있던 두 친구도 승호와 함께 법회를 열심히 다녔다. 녀석들이 법회에 흥미를 갖고 잘 다닌다는 얘기를 지도법사 스님을 통해 들으며 나는 '나 스스로 더 훌륭한 불자가 되고 더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 먹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스님들이 펴낸 법문집이나 예세이류를 읽기 시작했다. 쉽게 풀이한 경전 해설서도 읽었고 소설이나 여행담도 읽었다. 그저 잘에 다니며 스님 법문을 듣고 기도도 동참하고 방생법회에 따라가는 것이 신행의 전부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책을 읽으며 느끼게 되었다. 어느날 스님을 찾아가 '책을 읽는 재미가 적지 않다'는 얘기를 했더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불교는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여러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닦는 것이 마음입니까. 그렇게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이 누구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닦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법당에서 책을 빌려다 보기도 하고 서점에 나가 책을 사다 읽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나 스스로 갑갑해 했던 의문들도 나름대로 정리되었고 마음이 풍요로워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점에 가면 승호를 위해서도 한 두권씩 책을 샀고 녀석은 잘 읽어 주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읽을 만한 불교책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 불교의 용어들이 어려워 책을 잘못 고르면 읽을 수 없고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터득하고

있었다. 때문에 책을 매우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어서 승호가 읽을 만한 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었고 약간의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무튼 승호는 안정이 되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절에도 잘 다녔다.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나의 독서하는 생활은 기쁨 그 자체였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소망이 생겼다. 법당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말이 도서관이지 그저 책꽂이 몇 개를 청소년공로로 채워주는 정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스님께 나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스님은 단면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다'라고 했다.

**이법성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마감 12월 15일**

**제 2 회 신행수기 찾습니다**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신행수기 공모는 자신의 신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삼보에 귀의하여 불자의 길을 걸으며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웃과 나누며 불심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 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넓혀갈 기회를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선작은 본지에 연재됩니다.

△원고분량: 2매자 원고지 30매 내외

**당선작 97년 본지 신년호에 발표**

△공모대상: 불자면 누구나  
△원고마감: 1996년 12월 15일(마감날짜 소인 유효)  
△당선작 발표: 1997년 본지 신년호  
△시상내역

- 대상(유아상·1명)
- 상대 상품(부처님조각 승금 메달 5돈)
- 우수상(본사 사장상·2명): 상대 상품(3돈)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상(1명): 상대 상품(3돈)
  - 천태종 총무원장상(1명): 상대 상품(3돈)
  - 대한불교진종원 이사장상(1명): 상대 상품(도서)
  - 응모자 전원: 도서출판 여서출판 도서 증정

△접 수: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공모 담당자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현대불교신문사**

###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 금각사

2월 오전 1시, 묵락 소리로 꿈기고 절은 조용해졌다. 비는 아직도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발에서 벗겨진 석단을 안고 다이쇼 뒤쪽으로 걸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싶었다. 다이쇼 뒷문 쪽에 쌓여 두었던 짐을 내 방에 걸쳐서 금각사 요시미즈 상 앞으로 날렸다. 이제 불을 질러 버리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식욕이 동했다. 나는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영뿔으로 달려갔다. 저녁 노을에 물든 연꽃 위에서 금각사가 뚜렷이 보였다. 나는 최후의 이별을 고향 섬으로 금각사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행위의 일부 직전까지 준비했었다.”

“행위” 그 자체는 완전히 꿈꾸어지고, 내가 그 꿈속에서 완전히 살아 본 이상, 그러고도 영위를 감행할 필요가 있던 말인가. (임재복) 시종장에 있는 유명한 한 구절



그림 · 심민섭

을 것이로다.’

이 많은 나를 무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갑자기 온 몸에 힘이 솟아 올랐다. 마음의 일부는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집요하게 알리고 있었으나, 이미 나의 힘은 헛된 일에 걸리지 않고 있었다. 금각사 쪽을 바라보았다.

**“금각사에 불을 질렀다 나를 다 태우고 싶어서...”**

나의 머리는 또렷이 맑아졌다. 성냥개비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는 다른 한구둑으로 달려가 또 한 개비의 성냥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다른 다발의 불빛에 불을 붙였다. 타오르는 불길은 나를 위로했다. 시주함에 불이 옮겨붙었다. 삼시간

에 불길이 내 주위로 퍼졌다. 기침을 하면서 구조초의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곳은 확실히 나의 죽음의 장소였다. 발밑에 불이 튀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연기에 숨이 막혀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기침을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번개 같이 물을 흘려서 계단을 뛰어내렸다. 나는 불속을 헤치고 간신히 서쪽 문으로 뛰쳐나오며 정신을 잃었다.

여기서는 금각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용돌이치고 있는 연기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불길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무 사이를 엄청난 불티가 날아다니고, 금각사 쪽의 하늘은 금모래를 뿌린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담배를 피웠다. 한바탕 일을 끝마치고 한 대 피우는 사람이 흔하듯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 생활속의 불교 ⑩

### 누구나 알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

부처님의 십대제자에겐 한가지씩 별명이 붙어 있다. 두타제일, 지혜제일, 신통제일, 다른제일 등.

수행방편이 그렇듯 다양함을 보여준다. 가섭존자는 의·식·주에 집착하지 않는 듯타의 행으로, 사리불은 지혜로, 목건련은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아난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귀의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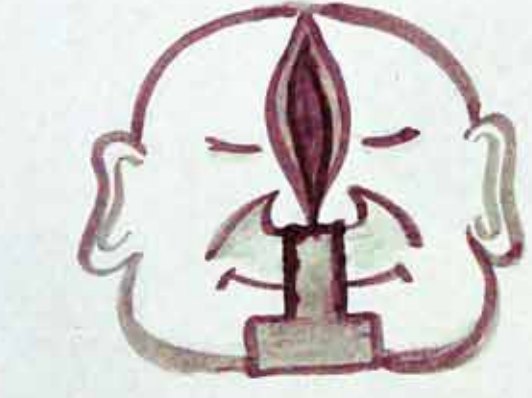
그렇다고 십대제자들이 한가지 방편만을 취한 것은 아니다. 또 방편의 덕으로 십대제자의 반열에 오른것도 아니다. 각자 인연도리에 따라 좀 더 익숙한 방편을 택한 것일 뿐이다. 그들의 수행은 오로지 삼법인(三法印)-제행무상, 제법 무아, 열반적정-의 철저한 실천 그것이었다.

**불법은 실천으로 일관한다.** 부처님 말씀이나 역대 선지식의 가르침 어느 것을 보아도 실천을 떠난 것은 없다. 팔만사천 법문도 한결같이 실천을 역설한다. 경전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터득하게 된다'는 형식을

위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교외별전(敎外別傳), 언어도단을 강조하는 것은 실천만이 진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불법에서 실천을 했다면 가르침은 다만 철학이나 사상으로 남게된다. 고로 불자로서 실천을 중시하는 것은 부처님을 人天의 스승으로 모시는게 아니라 그저 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사상가나 철학자로 격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자리에서 '사상'의 자리로 낮추어 평가하는 꼴이 되고 만다.

**경·율·론 삼장은 다 행을 위한 것이다.** 바로 도(道)인 것이다. 가라고 있는 것이다. 가지 않는다면 도는 이미 도가 아니다. 저 식단표가 음식을 골라 먹으라고 써여진 것처럼 행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려 하지 않고 식단표만 들여다 보면서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팔만사천 경전을 가로 세로로 꿰고 귀절



귀절을 달달 외다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국맛, 밥맛을 모를 것이라고 했다.

**실천없는 수행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 사막에서 물 한모금 구하기가 어려운데 신기루면 그나마 물 한방울인들 있었는가.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 강물에 대해 소상히 아는 것만으로 내 갈증이 적셔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내 앞에 놓인 한 잔의 물보다도 못하다. 따라서 가르침에 대해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실천에 옮기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진너편 언덕에 다달으려하면 그냥 다리를 건너가는 게 중요하지 다리의 구조나 재료, 공법 따위를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다. 다리는 건너가라고 놓여진 것이니 감상하라고 놓인 것이 아니다. 도피인(到彼岸)은 실천이다.

**불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실천 할 수 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생명 사랑, 나눔 같은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불법의 실천과 딱 맞아 떨어진다.

생활 속의 불법이라는 게 꼭 관선이냐 명상, 기도·염불 정진, 화두공안 등 뭔가 좀 색다른 방법이라야 어울리는 게 아니다. 그런것을 선호한다면 오히려 거기엔 미처 감지하지 못한 이기심, 자의식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참 나는 무엇이 바른 실천인지를 알고있다.** 그리고 거기엔 작은일, 큰일 또는 일상적인 것 특별한 것의 분별이 붙지 않는다. 가르침 한가지라도 몸소 지성으로 실천하는 거기에서 불법은 살아 숨 쉬게 된다.

**협찬 :** 지일상·양희진 지수연·자승호